

4대강 정비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생명 살아 숨쉬고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모습을 드러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홍수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관광과 여가·문화 등이 아우러진 다기능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 기여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 대책을, 섬진강은 보존위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영산강·섬진강 저수지 22개 제방 높여

가뭄 및 물부족 대비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가장 큰 의미를 물 추가 확보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강댐 건설 무산 등으로 인해 최근 10여 년간 댐 다운 댐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까운 장래인 ▲2011년 8억t ▲2016년 10억t 가량의 물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해 7억6천만t의 물을 확보하기로 했다. 영산강에 2개의 보를 설치해 3천만t의

물을 저장하고, 낙동강에는 8개(6억5천만t), 금강과 한강에는 각각 3개의 보를 설치해 각각 4천만t의 물을 가두게 된다. 또 중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해 2억5천만t의 물을 확보하고 올해 '댐 건설 장기계획'을 변경해 신규 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유역의 농업용 저수지 1만8천개 중 환경영향과 수물 면적이 적은 96개의 높이를 올려 2억4천만t을 확보한다. 영산강·섬진강에 22개(7천만t), 한강에 12개(1천만t), 낙동강에 31개(1억t), 금강에 31개(6천만t)의 저수지가 개선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과 영산강 살리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담양·화순에 홍수조절지 2개 만들어

홍수 방어 대책

4대강 살리기는 매년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홍수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도 설계됐다.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바닥에 퇴적된 모래를 5억4천만t 가량 준설한다. 퇴적토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적게는 1m, 많게는 5m가량 낮춰 제방누수와 하천법람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담양과 화순에 홍수조절지 2개와 나주와 여주, 영월에도 강변 저류지 3

개가 들어선다. 홍수조절지는 평소에는 비어있다가 홍수 때에는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댐과는 차이가 있다. 강변저류지의 경우 물을 가둬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빼는 역할을 한다. 노후제방 573km도 보강되며, 영산강과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해 신속하게 홍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홍수조절능력이 총 8억9천만t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진본부는 전망했다.

영산강 마한문화권 문화유적 복원

문화 르네상스 실현

정부는 4대강을 문화와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물길'로 재탄생시켜 21세기 녹색문화 르네상스를 열어갈 것임을 밝혔다. 우선 영산강은 마한문화권(고분·가마터 등), 낙동강은 가야문화권, 금강은 백제문화권, 한강은 삼국문화권 등 4대강별로 특화된 문화유적을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옛 뱃길 복원과 강변 경관 명소를 복원·정비, 주제가 있는 탐방 길을 구축하는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친환경 리버 투어리즘(River Tourism)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영산강~다도해 등을 잇는 내륙~강~해양을 연결하는 리버크루즈 상품도 개발된다. 이를 위해 태양광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또는 선상에 가상현실 체험관을 비롯한 정보통신(IT) 기술 구현형 리버크루즈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질 2급수로...환경 테마파크 조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정부는 4대강의 수질을 "물고기가 뛰어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로 유지·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는 2012년까지 4대강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조성, 농경지 정리를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게 유지되거나 최근 상승하는 유역 등 34개소를 중점관리하고, 광주천 등 수질오염이 매우 높

은 5개 유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4대강 근원인 실개천 500여개소를 수생태계가 살아있는 깨끗한 개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태계 회복을 위해 방류하는 토속 어류도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체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을 인위적으로 풀어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질개선을 통해 살아난 4대강은 수계별로 습지체험·조류관찰·생태탐방이 가능한 물 환경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4대강 주변 농어촌 명품마을 육성

새 농업모델 제시

4대강 주변에는 테마가 있는 명품마을을 조성하는 '금강촌'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강변도로와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라 도시와 연결성이 좋아지는 점을 고려해 4대강 주변 농어촌을 명품마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4대강 주변 지역 중 개발이 진행중인 영산강 간척지 등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새로

운 농업모델 제시도 시도된다. 우선 정보통신·생명과학 등 첨단기술과 경관 농업, 식품·서비스산업 등을 종합한 첨단 신(新) 농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간척지에 첨단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농산물 수출 전진 기지화 구상도 담겨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농업모델을 이끌 다양한 젊은 인력 유입을 위해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도 이뤄진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F1·J프로젝트 연계 시너지 효과 높여야

전남도 '4대강 살리기' 건의

정부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발적인 추진방향을 밝히자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제시했던 요구사항들이 조만간 확정될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포틀러원(F1)대회와 서남해안관광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합동보고대회에서 "친환경 준설을 통해 뱃길을 복원하고, 섬진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사업 발주권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사업추진을 보장해줄 것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제안했다. 또 행복마을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사업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식수 전용 저수지 50개, 다목적 사방댐 78개를 건설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첨단의료 복합단지 전국 유치전쟁 가열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유치에 나선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입지가 1곳으로 정해져 자치단체간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가 개발할 첨단의료단지를 의약품과 의료가 분야로 나눠 2개 지역(분산형)에 조성할지, 단일 지역(집적형)에 조성할지를 놓고 고민해왔다. 위원회는 융합제품 개발, 규모의 경제 등 측면에서 의약품과 의료가 분야를 집적해 조성하는 모델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지 평가 기준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6월말까지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입지 1곳으로 결정 평가 기준도 확정 호남 등 10곳 경쟁

평가 항목은 ▲정주 여건의 우수성 및 개선 가능성 ▲교통 접근성 및 개선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사업의 조기 추진 가능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의 역량 ▲지자체의 지원 내용 ▲국토균형발전 기여 효과 등 모두 10가지이다. 입지가 1곳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된다. 현재 광주시·전남도를 포함한 호남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권, 충북권, 강원권, 경기권, 제주권, 9개 권역 10여개 지자체가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입지가 한 곳으로 정해져 유치전이 과열될 것 같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풍부한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자질있는 준비로 복합단지 유치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2038년까지 5조6천억 원(시설운영비 1조8천억 원, 연구개발비 3조8천억 원)을 투입, 신약 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10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예약/문의 0620 515-7602

우리나라 다시보기 제주도 재발견

세계 자연 유산에 지정된 아름다운 섬 제주도만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곳! 아름다운 풍경을 산책할 수 있는 도보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항공+항공 249,000원

선박+선박 128,000원

5월

전일정 광주출발 도/착기준

이전 코루트산상비대

※ 교통수단: 일반항공/특급기종이전, 여객기/도보

※ 숙박시설: 4인 1실/2인 1실/1인 1실

※ 식사: 1인 1식/2인 1식/3인 1식